

## 《선비답게 산다는 것》 선정기

# 진지하고 따뜻한 옛사람들을 만나는 즐거움

겨우내 찬 바람이 불던 <출판저널>의 서가에 반짝이는 책들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다. 설날 연휴, 그것도 월요일 하루 더 쉬는데도 기자들의 마음은 벌써부터 분주하기만 하다. 독자와 함께 읽고 싶은 책들을 찾아 나선 기자들의 마음에는 기자 한 명당 세 권으로 제한한 ‘이 달의 책’이 못내 아쉽기만 하다. 그렇게 올린 12권의 후보들의 면면은 다음과 같다.

제주도 시인 문충성의 《백 년 동안 내리는 눈》,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내는 편지로 더 많이 알려진 김진명의 《나비아 청산 가지》를 비롯해 유현식의 《통합적으로 철학하기 2-성장》, 구본형의 《사람에게서 구하라》, 김윤태의 《교양인을 위한 세계사》, 안대회의 《선비답게 산다는 것》, 박완서의 《호미》, 안혜령의 《농부의 밥상》, 조중걸의 《키치, 우리들의 행복한 세계》, 김기홍·박종기·신병주가 함께 쓴 《제왕의 리더십》, 고병권의 《고추장, 책으로 세상을 말하다》, 진중권의 《호모 코레아니쿠스》가 최종 후보에 올랐다.

이 중 안대회의 《선비답게 산다는 것》이 네 분 선정위원의 고른 지지를 얻어 3월호 이 달의 책으로 선정되었다. 박완서의 에세이 《호미》와 안혜령의 《농부의 밥상》이 선전했지만 네 분 모두 선정해주신 《선비답게 산다는 것》의 거침없는 질주(?)는 막지 못했다.

전봉관 교수는 “임기응변식 처세의 기법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바람직한 태도를 배울 책”이라고 《선비답게 산다는 것》을 극찬했다. 전 교수는 “한문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자료를 정밀한 고증과 유려한 문체로 풀어냈다”면서 “율곡, 다산, 박제가 같은 잘 알려진 선비뿐만 아니라 유만주, 이경전, 김정국 등 한평생 초야에 묻혀 지낸 선비들의 삶까지 엿볼 수 있다”면서 책의 미덕을 소개했다.

장석주 시인은 “선비는 언행과 처신에 엄격했던 조선 지식인이다. 그 중에는 후세까지 이름을 널리 알린 사람도 있고 낙척불우로 삶을 끝낸 사람도 있다”고 전제하고 “퇴색한 먼지를 뒤집어쓰고 낡은 서책에 잠들어 있던 그이들을 불러내 스스로 제 호기와 인물됨됨이를 드러내게 하는 저자의 문체가 꾸밈이 없이 담백하다”고 책을 평했다. 장 시인은 “덕분에 옛사람들이 남긴 글과 자취가 오늘의 안목에 비추어 생생하게 살아난다. 읽는 내내 읽는 즐거움이 적지 않다”고 덧붙인다.

고미숙 박사는 《선비답게 산다는 것》을 일러 “독자로 하여금 단지 옛것을 감상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일상의 갈피들을 계속 되돌아보게 한다”고 소개했다. 최재봉 기자는 “지은이의 안내에 따라 옛사람들의 삶과 글 속을 산보하듯 거닐다 보면 어느 순간 지금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뿌연 막이 말끔히 걷히고 그동안 보이지 않던 길이 환하게 보일 것”이라고 전해왔다.



이 달의 책, 이 달의 저자 선정위원

고미숙 고전평론가  
장석주 시인, 문학평론가  
전통관 KAIST 인문학부 교수  
최재봉 한겨레신문 문학전문기자

한편 고미숙 박사는 고병권의 《고추장, 책으로 세상을 말하다》를 첫 자리에 두었다. “책과 세상이 ‘아름다운 전투’를 벌이는 책. 무엇보다 목차의 형식과 편집이 참신하기 그지없다. 기본항목들 옆에 독서메모와 세상메모가 나란히 가고 있어 마치 비트가 적절히 구사되는 락음악을 듣는 느낌이다.” 덧붙이기를 “저 아득한 희랍의 지혜와 ‘지금, 여기’를 단 한결음에, ‘대각선으로’ 연결하는 담대한 필력이 돋보이는 책. 지식인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추장’의 저력을 확인하기에 모자람이 없다”고 평했다.

최재봉 기자는 박완서의 산문집 《호미》를 첫 손에 꼽았는데, “소설가의 산문이란 흔히 소설로 쓰고 남은 이야기, 일종의 부스러기이기 십상이다. 그러나 뛰어난 소설가들의 산문은 그 자체로 소설 못잖은 울림을 주곤 한다. 박완서의 산문들이 그러하다”고 평해 작가 박완서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드러냈다.

《선비답게 산다는 것》이나 《호미》가 호평을 받을 것보다 <출판저널> 기자들을 놀라게 한 것은 안혜령이 글을 쓰고 김성철이 사진을 촬영한 책 《농부의 밥상》이다. 흔한 참살이(웰빙) 관련 서적인가, 하는 의구심을 한방에 날려 보낸 선정위원들의 촌철살인이다.

“땅에서 나는 소출로 밥을 짓고 그 밥의 정직함에 기대어 사는 이들의 소박한 밥상을 굳이 들여다보고 시시콜콜한 곡절을

맛깔 나게 적었다. ... 이 책을 읽으면 밥상이 곧 우주라는 게 실감이 난다. 꽤나 발품을 들여 만든 책이라는 게 금세 느껴진다”(장석주).

“농촌의 무지막지한 파괴가 자행되는 이 시대, 이름 없는 산골에서 우직하게 논밭을 일구며 살아가는 농부들의 밥상은 그 자체만으로 탐욕과 다이어트를 극단적으로 오가며 죽지 못해 안달하는 문명인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투사한다”(고미숙).

“헬렌과 스콧 니어링 부부의 ‘소박한 밥상’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도 진짜 농부들의 밥상이 있다!”(최재봉).

사실 3월호 이 달의 책으로 선정위원들은 《선비답게 산다는 것》과 《호미》《농부의 밥상》을 우선순위의 차이만 있을 뿐, 고르게 지적해 주었다. 그 중 두 분에게서 첫 손가락에 꼽힌 《선비답게 산다는 것》이 이 달의 책으로 선정된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선비답게 산다는 것》이 가진 저자의 글 자체도 내공이 충분하지만, 옛사람들의 풍모를 담고자 하는 열망의 발현으로 보는 것도 그리 틀린 해석은 아닐 것이다.

“남은 거죽을 벗겨내고 다가가 살펴보면 오히려 더 진지하고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품은 생각과 마음이 보이는 듯했다”는 저자 안대회를 길라잡이 삼아 옛사람의 삶과 사랑을 되짚어보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라. **한**